삼다일보

숭고한 역사를 기억하겠습니다

삼다일보 | 승인 2026.11.24 18:24

강지웅 부산대학교 유기소재시스템공학과 3학년



저는 제주 4·3 희생자의 유족입니다. 현재 부산대학교 유기소재시스템공학과 3학년에 재학 중이며, 반도체융합 전공을 복수전공하고 있습니다. 지난 여름,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이 복권기금 사업으로 올해 처음 마련된 '미래 이음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4·3은 제게 교과서 속 사건이 아니라 우리 가족이 겪은 역사입니다. 영문도 모른 채 희생되신 분들과 그 아픔을 가슴에 묻고 긴 침묵의 세월을 견뎌 온 유족 어르신들을 떠올리면 마음이 숙연해집니다. 그래서 이 장학금은 제게 기쁨보다 먼저 감사와 책임감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분들이 계셨기에 지금의 제가 있다는 사실이 늘 감사하고 또 마음이 무겁습니다.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해 애써 온 유족들과 많은 분의 노력 덕분에 4·3은 이제 평화와 인권의 이름으로 기억되고, 그 기억은 후손의 꿈을 응원하는 장학금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장학금 덕분에 경제적 부담을 덜고 반도체 복수전공 공부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반도체가 주전공과 너무 멀게 느껴졌지만, 공정 수업에서 유기소재가 회로를 새기는 핵심 소재로 쓰인다는 것을 깨달으며 반도체 공정 엔지니어라는 꿈도 분명해졌습니다.

이 장학금은 복권을 산 이름 모를 많은 분의 작은 나눔이 모인 복권기금으로 마련되었습니다. 그 나눔이 아픈 역사를 기억하고 후손의 내일을 응원하는 데 쓰이는 것을 직접 경험하며 복권기금의 공익적 가치를 실감했습니다.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며 그 아픔을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4·3이 남긴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마음에 새기고, 제가 받은 도움을 언젠가 우리 사회에 돌려주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사회에 필요한 인재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역사를 지키고 후손의 꿈을 응원해 주신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관계자분들을 비롯한 모든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저작권자 © 삼다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삼다일보